

청소년 34% “죽고 싶다 생각해봤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37.2% 학업 문제 꼽아
청소년 절반 수면 부족...고교생 68.3%가 호소
학업 스트레스·불안한 미래 청소년 삶에 고통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33.8%는 평소 죽고 싶다는 극단적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형식에 맞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영역별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274명, 중학생 285명, 고등학교 346명 등 총 906명이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33.8%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8.6%는 가끔 생각한다, 5.2%는 자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주된 이유는 가장 많은 37.2%가 학업 문제(학업부담·성적)를 꼽았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9%,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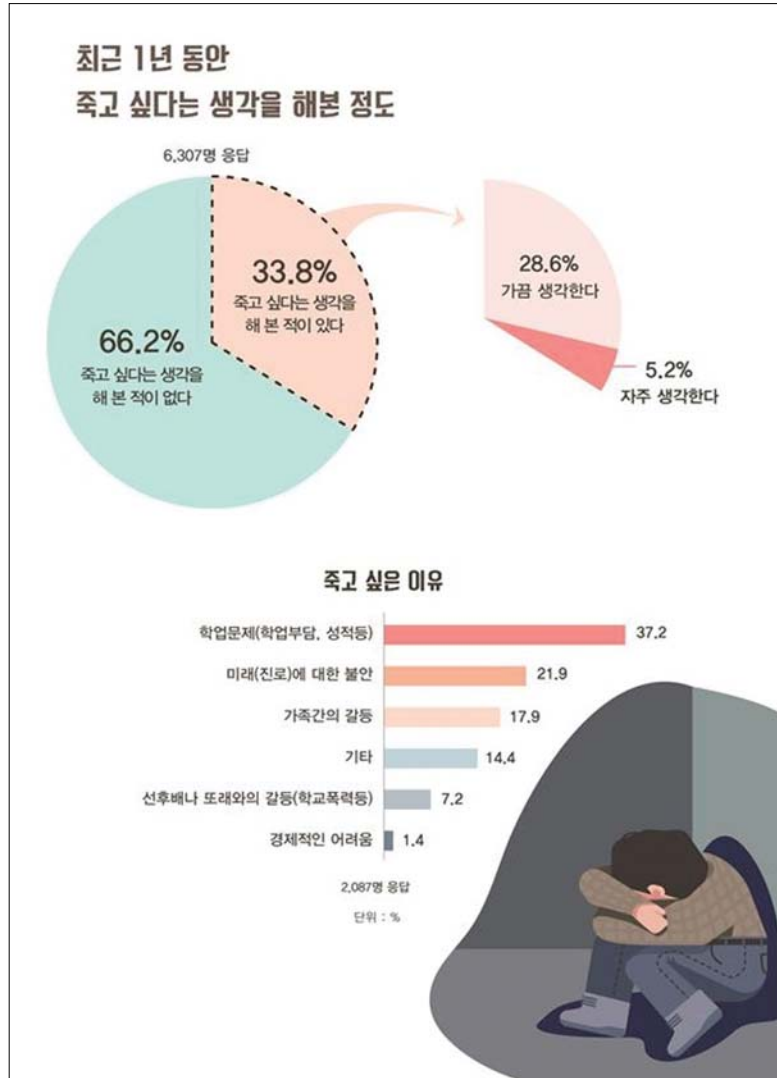
간의 갈등 17.9% 순이었다. 아동·청소년은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자유로운 생활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전체의 절반인 52.4%에 달했다. 특히 고교생은 68.3%가 수면시간 부족을 호소했다. 하루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고등학생은 54.8%, 중학생 40.4%, 초등학생 34.5%였다.

청소년 중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5%였다. 고교생 34.9%는 운동을 일주일에 1회조차 하지 않았다. 중학생은 24%, 초등학생은 8.7%였다.

연구진은 “아동·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가 이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신적 고통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희망의 전화(129), 생



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뉴스



장맛비, 오는 28일 끝난다 다음주부터 ‘더위와 전쟁’

오늘 밤 서해안부터 영향권...이후 장마전선 북상

중부·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는 24일 오전,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차차 동진하고 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 내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중부까지 확장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남하한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산동반도 부근에서 장마전선이 활성화 된 상황이다.

이 장마전선은 우리나라를 향해 느리게 동진하며 발달해 이날 밤 서해안부터 영향을 미치다가 차차 그 밖의 지방에도 비를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28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밤 서울·경기도·충청도 등 중부 서쪽지방을 시작으로 25일 낮에는 제주도·남해안·경상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이후 장마전선에 동반한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오르내리며 25일 저녁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6일에는 다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을 밀어올려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27일 밤 경상·전라도의 비는 그칠것이나, 서울·경기도·강원영서지역의 비는 28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이 기간 동안 고도 5km 이상 대기 상층의 건조한 공기와 고도 1.5km 이하 대기 하층의 습한 공기가 충돌해 대기 불안정성이 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특히 서울·경기도·충청도·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새벽과 오전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7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경기

남부·강원영서남부·충청북부 일부 지점에는 시간당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8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 100~250mm, 강원영동·경북북부 10~70mm, 경북북부를 제외한 남부지방 5~40mm다.

기상청은 “하천 범람, 주택 및 차량 침수, 산사태 등 급작스런 강한 비로 인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며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킨 북쪽 건조한 공기의 이동속도가 느릴 경우 28일 오후에도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장맛비는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장맛비가 될 전망이다.

197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중부·남부·제주의 평균 장마 기간은 31~32일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 전국에 첫 장맛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를 따져보면 통계적으로 7월24~25일 장마가 끝나는 시기”라며 “기압배치상 북태평양고기압의 수축이 어려워 마지막 장맛비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장마전선은 북한지방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여부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일시적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가 그친 이후는 지독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관측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북한지방까지 확장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적으로 낮기온 33도를 넘어서는 폭염과 밤에도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빈번히 나타내겠다.

조인호 기자

‘노른자위’ 호남대 쌍촌캠퍼스 학교시설 결정 폐지

광주시-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사전협상 마무리
242억원 공공기여...970가구 규모 공동주택 건립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받아 온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이 폐지된다. 공공기여와 함께 해당 부지에는 9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4일 호남대측과 2년여에 걸쳐 진행해 왔던 쌍촌캠퍼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성인학원 측이 242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6만116㎡ 규모로, 지난 2015년 3월 광산캠퍼스로 통합

이전한 후 유류부지로 남아 있다.

광주시와 호남대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학교법인인 성인학원 측이 광주시에 242억원을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분야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인 운전근린공원과 화정근린공원 조성에 206억원을 투입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경로당 등 기반시설 확충에 37억원을 기여한다.

이를 통해 근린공원 2곳에 대해서

는 공공기여가 이뤄져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학교법인 성인학원측과 18차례 협상회의와 건축설계 공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쳤다. 이번 사전협상은 지난 2017년 3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마련된 후 첫 사례다.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9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반절차를 추진할 전망이다.

서은홍 기자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樂 폴파티

맑은물 푸른숲 정남강 장흥

제12회 정남강인강홍 물축제

2019. 7. 26(금) ~ 8. 1(목) 7일간
담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년 연속 우수축제

- 주요행사 일정 -

- 개막식 : 7월 26일 (금) 오후 8시 (축하공연_ 비와이, 노라조, 제시, 박애리 등)
- 살수(薩水)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7일 (토) 오후 1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6일 (금) ~ 8월 1일 (목) 오후 2시
-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 7월 27일 (토) ~ 8월 1일 (목) 오후 3시
- 장흥 워터樂 폴파티
 - 7월 26일 / DJ에나, 허조교
 - 7월 27일 / 불릿밴드, 존자, DJ차니
 - 7월 28일 / 박수홍, 손헌수, DJ주주, 미스터팜, DJ레드핑크
- 공개방송
 - 목포 MBC : 7월 29일 (월) 송가인, 진시몬, 광민주, 이해리, 현진우, 소명, 정정아, 광민, 묵비, 김경아, 이청아, 김대나, 임영웅
 - C J 헬로 : 7월 31일 (수) 박규운, 레이디 T, 박서진, 소현아, 태연아, 한민지, 이세진, 임경진, 신아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년 연속 우수축제